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평화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과제

Online Series

2018. 02. 27. | CO 18-08

박주화(평화협력연구실 부연구위원)

평창 동계올림픽이 마무리되었다. 북한의 올림픽 참가 선언, 남북단일팀 구성, 남북한 선수단의 공동입장,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방남, 북한 삼지연 관현악단의 공연, 북한 응원단의 응원과 공연 등 남북 관계는 해빙의 순간을 맞이하였다. 올림픽 초기 강대강 대결국면을 지속할 것 같았던 미국 역시 탐색적 대화를 언급하며 대화의 시그널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대화에 더욱 적극적이다.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은 북미대화에 나설 뜻을 밝혔다. 비록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미국의 펜스 부통령과 북한의 김여정 특사 간 회담에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양측의 대화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적어도 평창올림픽 이후 대화와 협상의 모멘텀이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대화와 협상의 모멘텀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지지는 필수적이다. 단순히 국민의 참여를 국정 비전으로 제시한 정부의 지향성에 부합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북한 문제, 대북정책의 특성상 국민적 합의와 지지 없이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국의 노력은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구와는 달리 한국인의 이념적 지향을 결정하는 제1요인은 북한에 대한 태도이다. 따라서 대북정책에 대한 선호는 단순히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선호를 넘어 개인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문제이다. 대북 정책과 관련된 갈등의 골이 깊은 이유이다. 또한 다른 정책과는 달리 대북정책에 대한 성과는 계량화

하기 힘들며 성과에 대한 판단 역시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지지와 이해가 없다면 대북정책은 성공하기 힘들다. 평창 올림픽을 마중물로 삼아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 역시 탄탄한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만 성공할 수 있다.

평창올림픽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 喜懼之心(희구지심)의 심리

불과 두달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급격한 남북관계의 변화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어떠한가? 다소 맥락의 차이가 있지만 논어의 喜懼之心(희구지심)이 국민들의 심정에 대한 적절한 비유일 것이다. 기쁨(喜)과 두려움(懼)이 공존하는 상태라는 것이다. 남북한 공동입장,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에서 남과 북의 청년들이 함께 노력하는 모습, 북한 예술단이 한국의 노래를 부르는 등, 남북의 문화적 동질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랫동안 잊어왔던 남북이 하나 되는 감동을 경험하였다. 단일팀 구성 초기에는 당황스러웠지만, 한팀, 한마음으로 운동하면서 정이 들었고 사람 대 사람으로 잘 지내고 있다는 아이스하키 단일팀 선수의 인터뷰는 함께하는 경험의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군사적 수단이 아닌 외교적 방식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구현할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를 가진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희망과 기대 속에서도 마음 한구석엔 대화와 협상을 위한 북한의 유화적 제스처들이 소위 "악마의 미소"이며 북한의 책략에 말려드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와 공포감이 남아있음을 부인할 수도 없다.

하버드 대학의 허버트 켈먼(Herbert Kelman) 교수는 분쟁 국가들이 대화와 협상 국면으로 접어들면, 분쟁국 국민들은 필연적으로 실존적 갈등(existential conflict)을 경험하며, 실존적 갈등이 희구지심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협상과정을 연구한 켈먼 교수에 따르면 평화를 위한 대화나 협상이 시작되면 접근(approach)적 태도와 회피(avoidance)적 태도가 동시에 강화된다. 접근적 태도를 지닌 사람들은 희망과 열의를 가지고 대화와 협상을 지지한다. 반면 회피적 태도를 지닌 사람은 일반적으로 대화와 협상 상대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이 강한 사람으로 대화와 협상은 상대의 책략에 말려드는 것으로 간주한다. 결과적으로 대화와 협상은 자기파괴적인 행위로 비춰지며 집단의 안전이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감과 절망감으로 대화와 협상의 효과에 대해 의구심을 가진다. 한국의 상황에 대입하자면 남남갈등인 것이다.

켈먼 교수는 접근적 태도와 회피적 태도의 갈등이 집단적 수준, 즉 남남갈등의 형태도 나타날 뿐만 아니라 개인의 마음에서도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개인이 두마음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대화와 협상에 대한 희망과 열의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대화와 협상의 위험성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실존적 불안감은 특히 대화나 협상 과정에서 양보와 타협이 발생하는 경우에 극대화된다. 양보와 타협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빠진 것은 아닌지, 국가 안보에 위협이 있는 것은 아닌지를 걱정하는 것이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협상과정에서 관찰된 양가적 태도가 한국에서도 존재하는가? 통일연구원의 2017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시사한다. 북한에 대한 접근적 태도를 반영하는 대북 관여정책과 북한에 대한 회피적 태도를 반영하는 압박정책을 동시에 선호하는 국민의 비율이 39.3%로 가장 높았다. 북한에 대해 관여만을 추구해야 한다는 집단, 즉 접근적 태도만을 가진 국민의 비율은 11.7%, 북한에 대해 압박만을 추구해야 한다는 집단은 17.8%, 무관심한 집단은 31.2%였다. 어떻게 보면 한국인은 언제나 북한에 대한 두마음의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다.

기회 요인과 도전 요인

대화과 협상국면에서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형성하기 위한 기회요인은 북한에 대한 회구 지심이다. 국민적 합의와 지지 형성에 도전 요인 역시 북한에 대한 회구지심이다.

회구지심의 심리를 이해하고 접근적 태도와 회피적 태도를 동시에 고려한 정책이 제시된 다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의 국민적 공감대는 강화될 것이다. 회구지심이 말하는 것은 접근적 태도와 회피적 태도가 제로섬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즉 접근적 태도가 강화 된다고 해서 회피적 태도가 약화되는 것이 아니다. 대화와 협상이 지속되면 기대와 희망이 커지는 동시에 우려와 공포도 커지게 된다.

과거 정부의 대북정책은 접근적 태도와 회피적 태도를 제로섬 관계로 인식하였다. 햇볕 정책으로 대표되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접근적 태도만을 강조한 반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상대적으로 회피적 접근만을 강조하였다. 결국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회구지심의 한 측면만을 강조하면서 다른 한 측면을 외면하였다. 접근적(회피적) 태도가 설득력을 얻으면 회피적(접근적)태도가 약해질 것이라고 본 것이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두 태도들의 강도가 동시에 증가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접근적 태도의 강도를 회피적 태도의 강도보다 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화로운 한반도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제시하며 동시에 안보적 불안을 예방하는 정책이 제시된다면 평화와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강화될 것이다. 반면 대화

와 협상의 희망만을 강조하거나, 안보적 불안을 자극하여 회피적 태도가 강해진다면 국민적 공감대의 기반은 약화될 것이다.

정책적 과제

국민들의 대화와 협상에 대한 접근적 태도를 강화하고 회피적 태도를 예방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는 남북관계를 제로섬 관계로 보는 '제로섬 편향'을 극복하는 것이다. "북한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 안 되는 것 아닌가?" 라는 말을 종종 들곤 한다. 북한 요구가 무엇이든 간에 북한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 자체가 한국의 손해라는 것이다. 북한의 이익은 한국의 손해이며 북한의 손해가 곧 한국의 이익이라는 제로섬 편향은 윈윈을 추구하는 대화와 협상 자체를 불가능하게 한다. 제로섬의 인식 틀에서는 북한과 한국이 모두 이익이 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이익이 한국의 손해이기 때문에 한국의 이익이 상쇄된다. 즉 윈윈 상황은 북한의 이익인 상황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제로섬 편향의 더 큰 문제는 판단이 기준이 한국의 이익이 아닌 북한이 되는 것이다. 국제관계든 인간관계든 협상의 목표는 자국의 이익과 나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제로섬 편향 상황에서는 나의 이익보다는 북한의 이익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북한에게 손해를 입히기 위해 한국도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가? 심리적 이익을 위해 실질적 이익을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정부는 대화와 협상과정에서 철저하게 한국의 국익을 강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반도 평화는 한국의 국익에 부합되며 대화와 협상 역시 한국의 국익을 위한 것임을 강조해야 한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 한국, 북한 및 관련국들의 이익이 일치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다. 북한에 이익이 되는 협상안이라고 할지라도 그 협상안이 한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담대함을 설득해야 한다. 한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권을 진다는 것은 한국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독불장군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관련국들의 이익을 고려하며 조정안을 제시하면서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를 주도적으로 형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두 번째 과제는 평화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다. 분단 이후 우리 국민은 비평화상태에서 살아왔다. 비평화상태가 체화되어 있으며 비평화상태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 인간의 보편적 현상 유지 편향을 고려한다면 편안한 비평화상태는 평화적 한반도가 불편한 현상 타파일 가능성도 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접근적 태도는 평화가 우리 삶에 불러올 긍정적 변화에 공감할 때 강화된다. 통일은 미래의 일이지만 평화는 현재의 일이다. 평화의 이익은 간접적이며 예방적이다. 평화는 사회 간접 자본을 쌓는 것과 같다. 한반도의 평화는 개인과 기업의 생산 활동과 경제 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이익을 제공한다. 1970년대 경부 고속도로가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력과 같은 것이다.

불안한 한반도 정세는 항상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주가 지수,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이 있을지 살펴보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상황이지만 당연시 되고 있다. 평화로운 한반도는 지금까지 불필요하게 감수해왔던 안보를 위한 경제적 희생을 예방할 수 있다. 통일대박론과 같이 미래의 상상하기 힘든, 그래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편익 보다는 현재의 예방적 이익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북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북한의 관점에서 한반도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공감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나의 문화와 생각을 잣대로 상대방의 문화와 환경을 이해하는 거울영상효과(mirror image effect)를 제거해야 한다. 평창 올림픽 기간 중 발생한 김일성 가면 논란은 북한 이해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대통령도 풍자와 유머의 대상이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잣대가 북한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것이다. 과거와는 달리 김일성 가면 논란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은 것은 북한 체제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를 위해 통일과 평화 교육에서 북한의 실태뿐만 아니라 북한 체제의 인식론적 틀을 포함한 보다 입체적인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민족 동질성이라는 이름으로 남북의 동질성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남북의 차이를 확인하고 우리의 시선에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왜 비정상적인 것들이 받아들여지는지, 그리고 그러한 비정상적 정상성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토론과 고민이 필요하다. ©KINU 2018

'평화는 폭력에 의해서 유지될 수가 없다. 그것은 오직 이해를 통해서만 유지될 수가 있다'
- 알버트 아인슈타인 -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